

## 힝클리 대관장의 근황



오하이오 주 하이람에 있는 존 존슨의 집(최근에 복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들을 열 다섯 차례나 받은 곳이다.  
힝클리 대관장이 10월에 그 집을 헌납했다.

**20**01년 10월과 11월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오하이오 주 하이람에서 복원된 존 존슨의 집을 헌납하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사적지를 둘러보았다. 또한 최근 보수 작업이 끝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방문자 센터 두 곳을 헌납하고 유타 주 시더시티의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오하이오 주의 사적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오하이오 주 하이람에 있는 존 존슨의 집을 가리켜 "이 백성의 역사에서 불멸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01년 10월 28일에 그 집을 헌납했다. 교회 소유의 존슨 농장에 위치한 이 사적지는 요셉과 엠마 스미스가 살던 1830년대 초 당

시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최근에 복원되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농장 근처의 한 교회 집회소에서 진행된 헌납식 말씀에서 "이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고 알려지는 한, 존 존슨의 집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다른 단위 조직에도 방송되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약 40킬로미터쯤 떨어진 존슨의 집에서 1831년 9월부터 약 1년 정도 생활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열 다섯 차례에 걸쳐 계시를 받았고 그 내용은 현재의 교리와 성약에 수록되었으며 제1편은 이 책의 서문이 되었다. 1832년 2월에 존슨의 집에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현으로 보았다. 이 시현은,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 계시된 교리와 더불어, 교리와 성약 76편에



시진 촬영: 손 스토를, 시진 뉴스 제공

힝클리 대관장 부부(앞)와 헤이트 장로 부부(뒤)가 커틀랜드 방문자 센터 책임자인 데이비드 브라운(왼쪽)과 커틀랜드 스테이크장을 역임한 티모디 헤드릭과 함께 존 존슨의 집을 돌아보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요셉 스미스가 성경 번역의 중요한 부분을 완성한 것도 존슨의 집에 기거하는 동안 있었던 일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곳에서 나타났으며 이곳에서 알려져 ...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시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으나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교회 회원은] 천백만 명입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기간은 많은 놀라운 계시들이 주어진 시기로 알려졌지만, 또한 가혹한 박해가 가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1832년 3월 어느 추운 날 밤, 폭도들은 요셉과 시드니를 침대에서 끌어내 그들을 때리고, 독을 먹이려 하였으며, 뜨거운 타르를 몸에 붓고 깃털을 문혔다. 요셉과 엠마의 어린 아들은 폭도들이 집에 들어닥쳤을 때 추위에 노출되어 5일 후에 죽고 말았다.

헌납 기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께서 몸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나타나신 장소로, 예언자가 살면서 성경을 번역한 장소로, 또한 당신 아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계시들이 주어진 장소로, 그리고 그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장소로서, 존 존슨의 집을 당신께 그리고 우

스며시고, 또한 당신의 아들이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며, 예언자가 당신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기록하게 보존하여 은혜 받은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음을 항상 상기시켜 주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존슨의 집의 복원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대관장이 복원된 뉴엘 케이 휘트니 상점을 헌납한 1984년에, 교회가 역사적인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시작한 4단계 복원 계획 가운데 2단계 사업이다. 예언자 학교가 그곳에서 문을 열었으며 요셉은 교리와 성약에 있는 여러 편의 계시를 받았다. 그곳은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사는 동안 교회의 본부 역할도 했다.

복원의 3단계는 2002년 봄에 완성될 예정이다. 3단계에는 새로운 방문자 센터 건립, 휘트니 집의 복원, 그리고 존 존슨 여관의 재건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문자 센터는 1830년대의 건물 양식으로 건축될

리에게 거룩한 장소로 헌납하고 성별 하옵나이다. ... “이 집, 먼 곳이나 가까운 곳으로 부터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살아 계셔서 말

것이며, 대형 창문은 방문자들에게 세그린 강의 경치를 선사할 것이다.

4단계 사업은 갯간, 제재소 및 학교를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2003년 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각 건물은 1830년대 커틀랜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존 존슨의 집을 헌납하기 전에 힝클리 대관장은 커틀랜드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적지를 둘러보았다. 그는 아내 마조리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그리고 그의 부인 루비와 동행했다.



힝클리 대관장 부부가 헤이트 장로 부부와 함께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엘 케이 휘트니 상점을 방문하고 있다.

###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

2001년 10월 31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와 하이람의 방문을 마친 뒤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온 힝클리 대관장은 새롭게 보수한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 두 곳을 헌납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각 방문자 센터가 “이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 가운데 평화의 섬이 되고, 당신의 영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구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함께 템플 스퀘어의 북방문자 센터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운데)가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있다.

대관장단의 두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조셉 비 위스린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등이 힝클리 대관장과 함께 헌납식에 참석했다. 위스린 장로가 헌납식을 진행했으며 자매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Our Savior’s Love”(영어 찬송가, 113장)를 불렀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드리기 전에,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의 역사를 일부 들려주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옛날 한 백 여 년쯤 전에는 일요일 예배를 태버나클에서 가졌습니다. 교회 회원뿐 아니라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7명이었던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 메인 스트리트 동편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방문자들이 교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물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의견이 수렴되어 1902년에 “전망대 같은 [작은 구조물]” 남쪽 문 근처에 세워졌으나, 방문자들을 넉넉히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1904년에 비로소 방문자 안내소(Bureau of Information)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1910년에는 2층을 올렸다. 템플 스퀘어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그 건물은 박물관으로도 활용되었다. 그 건물은 1978년에 완공된 남방문자 센터로 대체되었다. 북방문자 센터는 1963년에 완공되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템플 스퀘어에서 방문자 센터 역할을 하도록 아름답게 보수된 이 건물들을 우리가 갖게 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두 건물]이 제 역할을 잘해 주었다”고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에서 방문자 센터가 “은 세상을 향해 그 문이 활짝 열려 … 이곳에 많은 이들이 와서 당신의 위대한 대업과 왕국에 대해 배우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간구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영이 찔림을 받으며 사람들이 이해를 얻고 신앙을 더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이 교회의 회원으로 개종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구했다.

### 시더시티 150주년

유타 주 시더시티는 2001년 11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축제에서 도시 건설 150주년을 경축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주연사로 참석했다. 1851년 11월 11일에 시작된 교회의 유타 남부 지역 아이언 미션에 대해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작은 규모의 이주촌이 지난 150년 동안 존속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 마을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고장, 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쿨 크릭 옆에 처음으로 포장 마차를 세웠던 사람들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은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제 전에 연회가 있었으며 축제 후에는 150주년 무도회로 이어졌다. 그날 이른 시

각에 북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파로완에서 기념 포장 마차 대열이 시더 시티까지 여행을 했다. 최초의 정착민들은 훗날 시더시티가 된 지역까지 남쪽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파로완에 집결했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그의 말씀에서 남쪽으로 가서 아이언 미션을 만들라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부름에 응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언 미션의 이야기는 … 희생의 이야기이며, 용기에 찬 이야기이며, 지식도 별로 없이 위대한 신앙을 보여 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더시티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쪽으로 482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낯설고 사람도 살지 않는 땅으로의 여행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그들은 마치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채광과 철강석을 녹이는 것에 관련된 화학 기술을 숙달시켰습니다. … 그들은 소량의 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철광석과 석탄과 필요한 용제를 결합시키는 비결은 결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1858년에 상당히 큰 규모의 이주촌이 이곳에 정착되었을 때, 아이언 미션은 실질적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보다 더 절



유타 주 시터시티에서 150주년 기념 말씀을 하기 전에 기립한 대중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실하게 실망감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라 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이 정착

촌과 그 지역의 다른 정착촌들에게로 퍼져 나갔습니다.

“실패했다는 느낌이 퍼져 나가는 동안 좋은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곳에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확고하고 튼튼했으며 그 가지가 각 방면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생겨나고 집들이 건축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결국에는 남유타 대학교가 …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자라던 나무의 이름을 딴 시터시티는 이 나라 이 지역에서 강력하고 중요한 지역 사회가 되었습니다.”

## 독신 성인에게 주는 뱅크스 장로의 말씀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커다란 근원,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 수 있다고 칠십인 회장단의 벤 비뱅크스 장로가 2001년 11월 4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말했다.

뱅크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시련이 크고 아무리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필요한 평화를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악의 영향으로 어둡게 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서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하고 있으며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위안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이 안전한지 알고 싶어합니다.”

뱅크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웃 센터에 모인 20,000명 이상의 독신 성인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계획”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약 135,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북미, 중미, 남미에서 인공

위성 중계로 그의 말씀을 들었다. 22개 언어로 통역된 노변의 모임은 유럽 지역에 녹화 방송되었으며, 또한 전세계에 있는 종교 교육원 학생들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 로 제작되었다.

말씀에서 뱅크스 장로는 가족이 위기에 처했던 시절에 관해 언급했다. 그의 며느리는 일종의 뇌막염으로 인한 심각한 뇌 감염에서 회복되는 중이었다. 그의 아들은 일과 관련된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뱅크스 장로의 아내는 피부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저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구세주께서는 저의 가족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뱅크스 장로는 또한 초기 교회 회원들이 겪었던 커다란 박해와, 수영을 하던 도중 생긴 사고로 신체 장애인이 된 한

젊은이가 최근에 겪은 시련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생활 가운데서 시련과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늘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통을 준비하여 채워 두는 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낙하산, 즉 개인적인 시련과 역경에 당면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낙하산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영적인 낙하산에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지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보호 덮개를 구성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언자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도전적

이고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벅크스 장로는 말했다.

**깨끗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교활한 외설물의 영향을 받아들이면 평화를 지닐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둠의 안개에서 빠져 나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되돌아가십시오.”라고 그는 말했다.

**정직하십시오.** 벅크스 장로는 나이가 들수록 완전한 정직이야말로 교회 회원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정직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할 특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성품을 기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경전을 읽고 깊이 상고하며 자주 기도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 링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벅크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성약한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께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

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와 간구로 가득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 호, 18~19쪽)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평화를 위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전쟁과 다툼은 악의 결과로 오는 것이며, 평화는 의로움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다. (“세계 평화”, *성도의 벗*, 1990년 7월 호, 83쪽)

벅크스 장로는 전세계에 있는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시련과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은 매주 성찬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덧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그의 아들의 이름을 기쁘게 받들고, 항상 그를 생각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는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보



사진 촬영: 마이클 브라운, 제공: 처치 뉴스

벤 비 벅크스 장로가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에서 독신 성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 더 위안을 주는 약속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벅크스 장로는 결론으로 성찬을 힘당하게 취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힘을 쌓아 갑니다. 또한 더 훌륭한 백성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요한 확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과 관심에 대답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평화를 찾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사라 제인 위버, 처치 뉴스, 2001년 11월 10일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국민들,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장면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인들을 포함하여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비극으로 화를 입은 가족들과의 결속감을 보이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국민들은 정부의 권유에 따라, 9

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에 3분간 묵념을 했다.

종교 단체들 또한 회원들에게 기도 예배

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카톨릭, 제칠일 안식일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회원들, 개신교, 유대교인, 말일성도 및 다른 종교 단체들의 회원들은 모여서 애통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기도를 올렸다. 3,000명 이상이 기도에 참여했으며, 세상이 변화되어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프랑스랭 폴리네시아의 대통령인 개스톤 플로세와 다른 정부 지도자들도 기도 예배에 참석했다. 먼저, 대통령은 조지 더블류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 대한 연대와 사랑을 전하는 정부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야만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증오와 폭력에 반대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 모든 폴리네시아인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 친구들과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각 종교 단체들은 위로의 노래와 메시지를 나누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행사에서 타히티 파페아리 스테이크의 청소년 합창단이 개회 찬송과 폐회 찬송을 부르는 영예를 가졌다. 태평양 제도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인 얼 엠몬슨 장로는 저녁 모임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다. 타히티 파페아리 선교부에서 아내 린다와 함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멜린 울슨 장로가 폐회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현재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모든 미국인 선교사는 단 앞으로 나와 회중과 함께 미국 국기를 부르도록 인도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모임이 끝날 때 플로세 대통령과 다른 정부 지도자들은 단 앞으로 나와 미국인 선교사들과 굳게 손을 잡음으로써 그들의 사랑과 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였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줄을 지어 서서 지도자들을 따라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

##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다

1년 전에 했던 단순한 질문들이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방문자 센터에 있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난해 성전을 다녀온 후에 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교회 회원들은 방문자 센터의 선교사들이 인근 지역에 있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노변의 모임을 갖고 음악회를 열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전국의 회원들을 강화하고 방문자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목적으로 2000년 8월에 시작됐다. 그 이후로, 노변의 모임과 음악회는 북쪽 섬 동해에 위치한 와이마나와 같은 외딴 지역에 사는 회원들과 구도자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 곳의 회원들은 자그마한 공공 건물에서 모임을 본다. 또한 이러한 모임과 음악회는 웰링턴, 오클랜드 및 헤이스팅스 지역의 커다란 스테이크 센터들에서도 개최되었다.

“한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수는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1,700명까지 되었습니다.”라고 방문자 센터의 책임자인 레오 디레오나드 장로는 말한다. 방문자 센터 밖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에는 12,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그 중 6,800명이 선교사들과 다시 만날 것을 요청했다.

노변의 모임과 음악회는 방문자 센터의 부부 선교사들이 외딴 지역에 있는 지역 지

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 “6개월에 한 번, 선교사들은 한 지부에 가서 회원 기록 정리를 도와주고, 공과를 가르치고, 성찬식에서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레오나드 장로는 말한다. 한 달 동안 인근 지역에서, 방문자 센터의 부부 선교사들은 스물네 번의 말씀 순서를 맡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방문자 센터 지도자들이 더 많은 청중과 함께 교회의 메시지를 나눌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뉴질랜드 공영 라디오 방송국 직원들은 방문자 센터의 선교사들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 왔다. 곧 지역 공보 책임자들과 방문자 센터 선교사들은 주례 물몬태버내클 합창 방송과 비슷한 라디오 시리즈를 계획했다.

“소책자를 갖고 매월 수백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에도,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수천 명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라고 레오나드 장로는 말한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0월 27일

## 아프간 난민에게 겨울 의복 전달

2001년 11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의 증가하는 필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양의 구호 물자가 보내졌다. 교회의 인도주의 봉사부에서 일차로 보낸 물자는 무게가 172,000킬로그램으로 담요, 신생아 용품, 위생 용품, 비닐 시트, 포장된 물과, 난민촌에서 필요한 기타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에는 또한 두꺼운 겨울 의류와 약 40,000장의 양모 담요가 들어 있다. 물자들은 파키스탄의 카라치까지 배로 운송된 후, 캠프까지 트럭으로 운송되었다.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수행했던 커다란 조치 중의 하나였죠.” 라고 인도주의 봉사부 책임자인 게리 알 플레이크는 말한다. “우리가 보낸 화물의 일부였던 일곱 대분의 두꺼운 겨울 의류는 원래 [다른]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는데 목적지를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운송하려고 했던 이유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물품들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던 물자들은 후에 보충될 것이다.

“교회가 종교나 국적에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은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과 후원자들의 관대함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물자가 난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네 개의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카운터파트 인터내셔널(Counterpart International), 머시코 인터내셔널(Mercy Corps International), 노어 인터내셔널 에이드(Nour International Aid), 그리고 프로젝트 컨선(Project Concern) 등이다. 교회는 다른 긴급 상황에서도 이 네 개의 단체와 더불어 일을 해 왔는데 그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인다고 플레이크 형제는 말한다.

그는 물자가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지역에 있는 난민들에게 보내진 이유가 아프간 내에서는 아프간 레드 크레슨트 소사이어티(Afghan Red Crescent Society)의 활동만이 허용되어 있고,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이것이 국제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플레이크 형제는 말한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1월 10일

## 중앙 아메리카에 수백 개의 휠체어 기증

**20**01년 10월에 교회는 휠체어 파운데이션의 설립자인 케니스 베링과 협력하여,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지에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휠체어 1,500개를 기증했다.

기증을 발표하는 기념식에는 엘살바도르의 영부인 라우르데스 마리아 로드리게스, 온두라스의 대통령 카를로스 로베르토 플로레스와 영부인 매리 플레이크 데 플로레스, 그리고 니카라과의 대통령 아르놀도 알렘과 영부인 마리아 페르난다 플로레스 데 알렘 등이 참석했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인도주의 봉사부 대표들 또한 자리를 함께 했다.

각 기증식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개의 휠체어가 전달되었다. 니카라과에서는 한 소녀가 남동생을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까지 동생을 업고

다녔다. 엘살바도르에서는 한 젊은이가 그의 새로운 휠체어 덕분에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온두라스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 온 한 카톨릭 수녀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엘살바도르의 영부인은 기증 받은 휠체어에 대해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해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도 교회를 치하했다. 니카라과의 영부인은 최근 그 나라에 든 가뭄 동안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온두라스의 대통령은 “온두라스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베링 씨와 파트너가 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권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증품은 사람들이 더욱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교회 인도주의 봉사부 책임자인 게리 알 플레이크, 케니스 베링,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호세 이 보자 장로(휠체어 뒤에 서 있음), 엘살바도르의 영부인 라우르데스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어린 소년과 그 아버지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있다.

## 변화를 가져오는 회원들

### 청녀들, 260시간을 봉사하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선교부의 치시나우 지부 청녀들은 작년 가을에 치시나우 시 고아원에서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은 인도주의 봉사 선교사인 로라 매킨타이어 자매를 통해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용 장난감 사용법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유아들은 청녀들의 다정한 손길과 부드러운 자장가를 좋아했다. 아기들은 게임 방법을 배우고 일부는 걷는 법을 배웠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첫 단어를 말하기도 했다. 절대 웃는 법이 없었던 한 남자 아이는 청녀들이 오기만 하면 밝게 웃었다.

8주 동안 총 260시간 이상을 봉사한 후에 일부 청녀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봉사하기 위해 학교 수업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0월 20일

### 머시 코(Mercy Corps)의 활동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세계 무역 센터 참사 후에 남은 휘어진 철재와 잔해들을 치우기 위해 뉴욕 시의 복구 요원들은 수 개월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 비극이 일으킨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에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가족과 어린이들

에게 희망과 위안, 그리고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머시 코 인터내셔널(Mercy Corps International)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교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말일성도 가족 봉사부에서 나온 교회 직원 팀은 몇 주 동안 뉴욕에 머물면서 머시 코를 도와, 뉴욕의 어린이들이 효과적으로 두려움, 분노 및 슬픔을 다스리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콤포트 포 키즈(Comfort for Kids)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9월 11일의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전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살거나 도움 청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 직원들은 다양한 지역 사회 지도자들 및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정보 교환 모임을 조직하고 주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상담 기술에 대해 훈련을 받았으며, 치유와 인내를 키워 주고 부모, 교사 및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받았다. 어떤 과정에는 영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 사회에서 온 대표들도 있었기 때문에 2개 언어를 구사하는 교회 직원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회 회원들과 전임 선교사들은 머시 코 요원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500개의

위문품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위문품에는 손전등, 미술 용품, 봉제 동물 등이 들어 있는데 이 물건들은 곤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반면 그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들이다. 위문품에는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돕는 데 필요한 안내 책자들도 들어 있다. Mercy Corps 프로젝트 책임자인 그리핀 잭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호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과 손을 맞잡고 일을 하면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조화로운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0월 27일

### 네 명의 회원,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국회 의원으로 선출

네 명의 교회 회원이 최근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국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투아모투 마케모 지방부의 테마우리 포스티, 타히티 파아 스테이크의 타리타 신쥬, 타히티 파페아리 스테이크의 히나노 테투아누이, 그리고 타히티 파페아리 스테이크의 아르스 네 투아이라우는 현재 49명의 국회 의원 가운데 일하고 있다.

## 2002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야호나 3월호에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위해서는 리야호나 2002년 3월호 친구들란의 14쪽과

15쪽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참조한다.

1.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은 성전 건축에 관한 지시 이상의 것임을 설명한다. 이



것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대한 청사진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영원한 집을 지음”,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2~7쪽 참조) 어린이들을 둘씩 또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더욱 강한 가정과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게 한 다음 그들이 찾은 내용을 지명 받은 지도자나 교사에게 발표하게 한다. 다음 과제를 준비하여, 각 그룹에 하나씩 나누어 준다.

기도 — 야고보서 1장 5~6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기도에 대해 배운다.

금식 — 마태복음 6장 16~18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을 알아본다.

신앙 — 신앙을 나타내 보인, 경전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야벳의 동생 — 이터서 1:3 참조; 에스터 — 에스터 1:7 참조; 다니엘 — 다니엘 1장 참조)

학문 — 신앙개조를 암송한다. 가능하면 외워서 한다. 학교와 교회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한다.

질서 — 신앙개조 제4조를 암송함으로써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의 순서를 말한다. 국법 한 가지를 택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왜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토론한다. 가족이 갖고 있는 규칙 한 가지를 택하여 그것이 왜 가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모든 그룹이 다 발표를 마치면, 종지와 연필을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준다. 종지와 연필을 두 사람 사이에 놓고 각 사람이 한 손으로 연필을 쥐고, 집을 그려 보라고 한다. 그들이 그린 몇 개의 그림을 보여 준다. 그들이 협력하면 그리기가 쉽다는 점을 지

적한다. 부모는 그들의 가정이 기도와 금식, 신앙, 학문, 그리고 질서의 집이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만 노력해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원리들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의 성전, 가정, 그리고 생활은 질서와 힘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점을 간증한다. 가정 또는 가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 ‘우’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이나 *친구들* 2001년 6월호 8~9쪽 참조)에 근거한 다음의 내용을 각 종이에 적는다.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 ‘우’ 중에 하나를 인용한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 교리와 성약 59:7;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 교리와 성약 93:36;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 시편 24:3~4;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 엘마서 53:20~21;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 엘마서 32:15~16;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 마태복음 6:6. 초등학교를 여섯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종이를 한 장씩 준다. 그들에게 성구를 단체로 읽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우’에 관련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연습할 시간을 준다. 그런 다음, 각 그룹이 차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우’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고, 노래나 성구를 발표한 후, 힝클리 대관장의 인용문을 읽고, 그분의 권고에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게 한다. 와드나 지부의 한 회원을 초대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표준을 어린이들에게 말씀하도록 한다. 그 회원에게 예언자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현재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성전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해: 각 반이 여섯 가지 ‘우’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한다. 이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들을 경전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제시해 주고, 각 반은 나머지 초등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열 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를 표했다; 아빈아다이는 진실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은 겸손했다; 숙제를 하는 어린이들은 지혜롭다;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쇼를 보지 않는 어린이는 깨끗하다; 음식 축복이나 개인 또는 가족 기도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기도하는 어린이다.

# 솔트레이크로 향하는

2002 동계 올림픽이 열리면서 전세계의 눈이 개최지인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언론들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보도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동계 올림픽 D-100, D-30, D-10, D-3' 등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개막일이 가까울수록 보도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의 경우, 12월 한달간 동계 올림픽 관련 기사가 3회 게재에 그쳤던 것에 반해, 1월에는 17회나 게재하였고, '솔트레이크 통신'란을 따로 만들어 올림픽에 대한 지면을 고정화했다.

한국 언론사들의 관심사중 가장 큰 것은 올림픽 개최지인 솔트레이크시티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이 도시를 "서부 개척시절 동부에서 핍박을 받던 몰몬교도들이 브링검 영의 지도 아래 마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다가 로키산맥을 넘지 못하고 정착한 곳"(1998년 2월 24일자)이라고 소개했으며, 한겨레 신문은 "솔트레이크시티는 전체 인구의 80%가 모르몬 교도로 19세기 중반 기존 개신교단의 '박해'를 피해 미대륙의 서쪽인 이곳으로 이동, '성지'로 삼았다."(2002년 1월 29일자)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1월 29일자(인터넷 보도 시각 기준)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에 맞추어 개최지인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를 개략적으로 조명했다.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의 보도를 초고로 한 이들 기사에서는 솔트레이크시티를 "모르몬교의 본거지" 또는 "주민의 70% 이상이 '모르몬교' 신자인 도시"로 소개했다. 그리고 "거리는 휴지 한 조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중 눈에 띄이는 것은 문화일보가 이례적으로 교회의 표준 경전에 대해 언급한 일. 1월 31일자 신문에서 김도연 기자는 "제19회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솔트레이크시티는 유타 주의 주도(州都)로 주민의 대다수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를 믿고 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모르몬교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4대 표준 경전

(성경, 모르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경전)에 모르몬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25일부터 중앙 일간지 기자 7명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그들은 올림픽 경기 장소와 교회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월 2일자 '문화' 면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인도주의 센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모르몬교 인도주의 센터를 찾아"라는 이 기사는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모르몬교를 재조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주도하는 모르몬교가 신뢰를 쌓아가는 주요 원인으로 ... 인도주의

SALT

솔트

센터와 가족의 밤”을 꼽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인도주의 센터를 인상깊게 묘사하고 있다. 인도주의 센터가 지닌 수천만 톤의 곡식과 옷, 의약품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뻗치는 도움의 손길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 이 기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실제 미국 안에서 북한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한 종교 기관”으로 꼽힌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원 봉사자라는 사실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도주의 센터의 도움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웃을 돕는 자원 봉사자들이 많은데, 결국 이것이 교회의 복지 정책과 맞아떨어짐을 강조했다.

“모든 교인들은 매달 첫째 일요일엔 하루종일 굶고, 절약한 돈을 모아 불우 이웃을 돕는다. 복지광장에서 통조림을 만드는 자원 봉사자로도 일하는 리처드 허드(46)는 ‘24시간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느끼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 기사에 인용된 리처드 허드 형제는 부산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자원 봉사자로 운영되고, 모든 회계 처리가 지독하게 투명한” 종교 단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에 힘입어 교회는 “미국에서 500만 명 이상의 신자를 두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신자가 1100만 명에 이르며, 가톨릭, 장로교, 감로교 등에 이어 다섯번째의 교세”라고 전했다.

문화일보 2월 4일자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을 역임한 브라운 장로와의 특별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리의 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통해 부활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브라운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가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세계 최다 족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에 대한 기사도 역시 게재되었다.

또한 한국일보에서는 1월 18일자 신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물문교 본부 건물이 ... 올림픽 분위기가 물



위: 한국일보 1월 18일자에 게재된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건물 사진.  
 왼쪽 아래: 각종 신문에 실린 동계 올림픽 관련 기사. 좌로부터 한겨레 2월 2일자, 일간스포츠 2월 7일자, 문화일보 1월 31일자, 한국경제 2월 7일자.

씬 풍기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연기 장면으로 뒤덮였다”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실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대해 언론이 보이는 관심을 보여준 이 사진은, 다음날인 1월 19일자 처치 뉴스 표지를 장식했다.

2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02 동계 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미국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별도로 올림픽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하면서 “유타 주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번 동계 올림픽을 ‘모든 나라의 친구로 (Friends to all nations)’ 를 기치로 전폭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회 운영을 위한 3만 5천 명의 자원 봉사자를 교회에서 대부분 확보하였다”고 소개했다.

최근의 이러한 올림픽과 교회에 대한 활발한 보도에 대하여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는 “교회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 맞아 대중 매체들이 개최지인 솔트레이크시티와 교회에 대하여 보도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지원하였습니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동계 올림픽을 맞아 교리와 성약의 말씀처럼 교회가 ‘어둡고 희미한 곳에서 나와 더욱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별히 방송 및 언론 보도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씨 뿌리는 자

## 서울 북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

**서**울 북 스테이크 서대문 와드는 한국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와드중 하나이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서대문 와드의 전신인 서부 지부가 중앙 지방부에서 분리되었다. 제대로 된 와드 건물 하나 갖추지 못했던 그 당시, 서울시 충정로 3기에 위치한 중앙여고 기숙사 건물을 빌려 회원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초대 지부장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테일러 장로였으며, 최초의 한국인 지부장이 탄생한 것은 6대째인 오계희 형제부터였다.

습하고 더운 마루바닥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서부 지부의 성도들은 그 어느곳보다도 서부 지부를 크게 키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 서부 지부가 시작할 때에는 고작 36명의 회원들이 전부였지만, 10년 뒤인 1967년 11월 12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헌납식을 가질 수 있었다. 현재 서대문 와드가 위치한 자리에서, 서울 선교부장이던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이 헌납 기도를 한 가운데 서울의 중심부를 헌납했다.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성도들 중에는 황근옥 자매가 있었다. 황근옥 자매는 1962년에 BYU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서부 지부에서 침례를 받고 송죽 고아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선교부장이던 팔머 선교부장과 킬 선교부장은 황 자매의 일을 적극적으로



텐더 애플즈 뉴 호라이즌 합창단. 황근옥 자매가 고아원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이 합창단은 교회를 알리는 데 공헌했다.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송죽 고아원 재단측에서 황근옥 자매를 말일성도라는 이유로 퇴임시켰고, 황 자매는 따라가겠다는 어린이 11명과 함께 '텐더 애플즈'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게 되었다.

킬 선교부장은 이 어린이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중창단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뉴 호라이즌'이라고 불린 이 합창단은 군부대에서 자주 공연했다. 또 방송궁에 출연하여 교회를 알리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 회원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와드 건축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서부 지부도 1973년에 서울 스테이크 2와드로 승격했다. 2와드의 초대 감독으로는 조규영 형제, 보좌로는 손병호 형제와 정민호 형제가 봉사했다.

와드가 조직된 지 5개월 후인 8월 11일, 교리와 성약 130편 20절을 주제 성구로 첫 와드 대회가 열렸다. 당시 참석 수는 300여 명이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짓기를 소망했다.

이를 위해 회원 각자가 일정 금액을 성실히 헌금했고, 결국 건축 기금의 20%를 채울 수 있었다. 또 그 당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남북출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를 절약하여 저금통에 동전



서부 지부 시절 지방부 대회 모습

을 가득히 넣어 9만원을 건축 기금으로 헌금한 일은 다른 회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또한 피어선 형제의 주선으로 300여 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해 와드에서는 2개월간 무용과 가야금 연주 등을 준비해 성황리에 모임을 마치고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1975년 9월 13일 드디어 건물 기공에 들어갔다. 건물이 완공되는 동안 야간 작업을 할 때도 많았는데, 이 때마다 상호부조회에서 팔죽을 끓여 현장 노무자들을 격려했다. 1년 뒤인 1976년 9월 1일, 동사부소 직원과 구청 직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와드 준공식을 가졌다.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으로 인해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다.

### 풍성한 결실

1977년 5월 22일, 서울 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고, 같은 해 9월 9일 서울 북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교회는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북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장으로는 홍무광 형제, 보좌로는 이남선 형제와 박기생 형제가 부름 받았다. 당시 십이사도였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이 모임을 감리했다.

북 스테이크 산하로 새롭게 출발한 2와드는 충청 와드로 이름을 바꾸었다. 충청 와드 회원들은 기록상의 회원이 100%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와드 대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21일, 와드 대회가 있던 날 365명이 참석했다. 이 때를 계기로 충청 와드 회원들은 선교 사업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충청 와드가 회원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가정 복음 교육과 스테이크 선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그 때까지는 성찬식을 저녁 6시에 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오전에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면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과 라면을 먹고 각자 맡은 가정을 방문한 후 성찬식에 참석했다. 가정 방문 결과 회원은 점점 많아졌고 선교사들은 구도자가 많아서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다.

당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이순철 장로는 1년 동안 8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또 스테이크 선교사로 활동하던 손병호 형제와 임승진 형제는 1년에 40명을 침례 주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개종자들은 다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개종자가 나올 수 있었다. 당시 충청 와드 소속이던 조순 자매는 일가 친척 30여 명을 침례 받도록 이끌었다. 이들 중에는 서울 서 스테이크 축복사인 민덕규 형제의 가족,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감독인 손병호 형제의 가족, 개봉 와드 고등 평의원인 조태환 형제의 가족이 있다.

12년 동안 초대 감독으로 봉사했던 조규영 감독은 1985년 8월 11일 명예롭게 해임되었다. 새로운 감독에 정건영 형제, 보좌에 박현진 형제, 정문영 형제가 뒤를 이어 봉사하였다.

90년대 들어 충청 와드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회원들의 이사와 이동이 잦아지면서 2001년 1월 28일 마포 지부와 통합하여 서대문 와드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재 감독으로 김규호 형제, 보좌에 조규영 형제, 박환수 형제가 부름 받아 봉사하고 있다.(김규호)

# 2002년을 열며

## 전국에서 열린 청소년 모임을 돌아보다

1월 한 달간 각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세미나리 졸업식, 일일 청소년 대회, 재능 발표회 등 다양한 모임을 가졌다.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와 발산 와드 청소년들은 올해로 새벽반 세미나리를 개설한 지 4년째를 맞았다. 지난 1998년부터 이옥순 자매가 15명의 반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반에서 4년간 새벽반 세미나리 전과정을 이수한 김창영, 표영훈, 박병천 형제, 이유나 자매가 졸업 증서를 받았다. 이 외에도, 1월 26일 열린 세미나리 졸업식에서 29명이 이수증과 수료증을 받았다.

한편 서울 북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동계 청소년 대회를 다녀왔다. 아론 신권 교사와 제사, 청녀 장미반과 월계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울산 바위 등반 도중에 발생한 환자를 제사반 형제들이 번갈아 업고 내려오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월 19일 청소년 재능 발표회 "나이트"가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나이트에는 1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했다. 청소년들은 합창, 변사극, 수화, 에어로빅 발표와 플룻, 피아노, 트럼펫 연주를 했다. 특히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직접 대본을 써서 무대에 올려 많은 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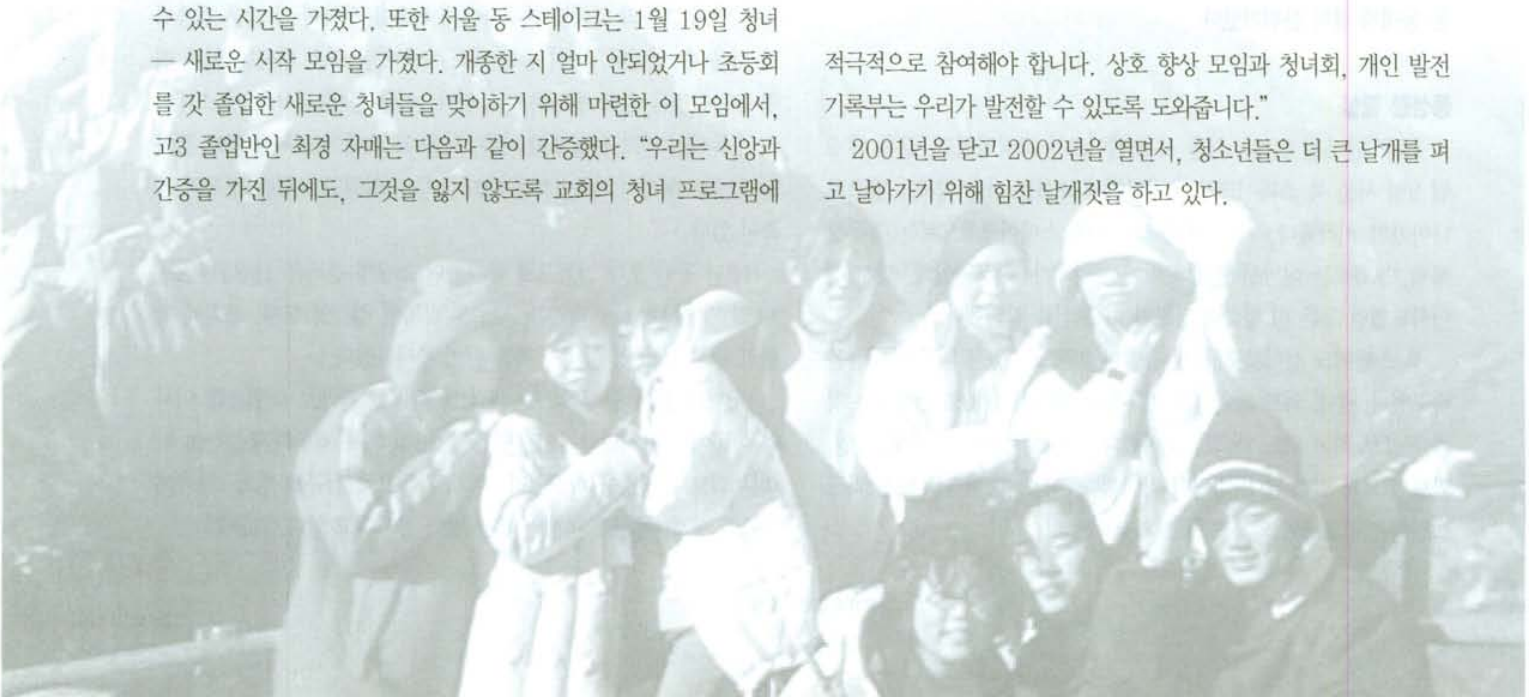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모임도 개최되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는 지난 해 12월 29일 청소년 송년 모임을 개최했으며, 전체 세미나리와 포크 댄스, 게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동 스테이크는 1월 19일 청녀 - 새로운 시작 모임을 가졌다. 개종한 지 얼마 안되었거나 초등회를 갖 졸업한 새로운 청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이 모임에서, 고3 졸업반인 최경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우리는 신앙과 간증을 가진 뒤에도, 그것을 잃지 않도록 교회의 청녀 프로그램에



맨 위: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 발표회 "나이트". 이 행사는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다. 위: 강서 스테이크 세미나리 새벽반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지도자들.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민혜기 형제가 이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아래(배경): 북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에서 설악산 등반 모습.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상호 향상 모임과 청녀회, 개인 발전 기록부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01년을 닫고 2002년을 열면서, 청소년들은 더 큰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다.



###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

지난 1월 19~20일 양일에 걸쳐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 서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이 개최되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의 감리 아래 열린 이 모임은 지역 소식 기사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제적인 기사쓰기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공필 여성 조신 편집장이 올바른 기사 작성법과 취재 요령을 강의했으며, "같은 신앙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잡지인 만큼, 독자를 배려하면서 기사를 쓰라"고 당부했다.

이 모임에서 22개 스테이크와 지방부의 공보 전문 위원들을 선교부 지역에 따라 재조직하고, 지역 책임자를 임명했다. 서울 선교부 지역은 서울 스테이크의 오애련 자매, 서울 서 선교부 지역은 영동 스테이크의 황선아 자매, 대전 선교부 지역은 청주 스테이크의 박미영 자매, 부산 선교부 지역은 부산 스테이크의 이희숙 자매가 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훈련 모임에 참석한 각 스테이크 지역 소식 기자들과 편집 위원들. 뒷줄 왼쪽부터 전우식, 이성열, 구분동, 고원용, 임부택, 심재선, 이중호, 조현석, 박세리, 이민희. 앞줄 왼쪽부터 이미경, 정춘영, 이희숙, 박미영, 김순애, 박형욱, 오애련, 박소연, 황선아.

####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명단

스테이크	이름	이메일	스테이크	이름	이메일
서울	오애련	aeryunoh@hanmail.net	대전	심재선	jsshim@kaeri.re.kr
동대문	전승철	curestar@hanmail.net	홍성	한영미	han0mi@hanmail.net
서울 동	김성구	kaymen_k@hatmail.com	전주	오경미	nikida@hanmail.net
서울 북	김규호	kghkgh2000@yahoo.co.kr	광주	박유미	pnks74@hanmail.net
영동	황선아	myid727@hanmir.com	순천	장봉철	jangbr@intizen.com
서울 서	박형욱	sisterpark99@hanmail.net	대구	이미정	dodo0802@hanmail.net
강서	정신정	tinycandy@hanmail.net	부산	이희숙	heesooklee@hanmail.net
수원	이상호	samlsh@hanmail.net	부산 서	정춘영	hobakyip@hanmail.net
안양	이중호	ohljay@hanmail.net	마산	김효권	kgh7306@yahoo.co.kr
인천	이성열	sy8500@hanmail.net	제주	김순애	love-mission@hanmail.net
청주	박미영	pmy7506@hanmail.net			

### 서울 서 스테이크 비축 프로그램 경연 대회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 서 스테이크 동작 와드 성도들은 72시간 비축 프로그램 경연 대회를 가졌다. 집집마다 비치해 둔 배낭을 메고 온 회원들은 비축 물품들을 나열하면서 가장 좋은 비축 물품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했다. "비축 물품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류하여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기저귀를 비축해 두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박형욱)

### 제주 지방부 음악의 밤

지난 해 11월 24일 저녁,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에서는 제1회 '음악의 밤'을 가졌다. 이 모임은 회원들이 구도자를 초대하고 음악을 통해 간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원들의 연주와 합창 외에도 제주 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순서가 있었다. 교회에 처음 온 제주대 학생들은 "모임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음악을 사랑하고 감상할 줄 아는 훌륭한 청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김순애)



### 영동 스테이크 서초 와드 독신 "가정의 밤"

영동 스테이크 서초 와드 독신들은 매주 월요일 밤에 주덕영 형제의 집에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다. 7시가 되면 보통 다섯에서 열 명 가량의 독신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데, 모두 학교와 직장때문에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 이들로 같은 와드 회원인 주덕영 형제가 이들에게 가정의 밤을 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서초 와드 독신들이 가정의 밤을 시작한 것은 1년 3개월 전이었다. 원래 주덕영 형제의 집에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선교 사업과 유학때문에 모두 집을 떠나게 되었다. 주 형제의 아내인 박성희 자

때는 "저희 둘만 가정의 밤을 하기에는 허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드에 있는 독신들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새로 침례를 받아 친구가 필요한 독신들을 위해 가정의 밤을 시작했지요."라고 말한다.

서초 와드 독신 회원인 이환주 형제는 매주 가정의 밤을 함께 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꾸준히 경전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황선아)



### 서승환 형제 뉴질랜드 메시 고등학교 수석 졸업



올해 뉴질랜드 메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승환 형제가 수석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닉스(DUX) 상을 받아 교민 사회와 뉴질랜드 한인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서 형제는 1995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서정욱 형제와 이근임 자매의 장남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문화부장, 테니스부 주장, 밴드부 지휘자로도 봉사했다. 서 형제는 오클랜드 시에서 주최한 작곡 경연 대회에서 "Fever"라는 작품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밴드 경연 대회에서도 "Best Original Song" 상을 받기도 했다. 서 형제는 현재 웨스트

하버 와드에서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한상익)

### 읽고 모심

지난 2월 개최된 동계 올림픽을 관전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다녀온 회원들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또 자녀를 세 명 이상 선교 사업을 보내신 분들의 간증을 기다립니다. 3월 20일까지 리아호나 담당자 앞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담당자 조현석 형제  
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우: 133-600)  
전화번호: 02) 2232-1441(교 550) 이메일: (Chohs@ldschurch.org)

## 역원 변경

###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감독: 송정훈(전임자: 백명석)

### 광주 스테이크

백운 와드 감독: 김도영(전임자: 박용연)

목포 와드 감독: 최남용(전임자: 이대성)

### 청주 스테이크

복대 와드와 한별 지부가 통합되어 흥덕 와드로 명칭 변경

흥덕 와드 감독: 오동령

###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감독: 정용환(전임자: 김진호)

### 마산 스테이크

충무 와드 감독: 권영일(전임자: 서동수)

### 수원 스테이크

오산 와드 감독: 권태후(전임자: 김재광)

###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감독: 이정배(전임자: 이상봉)

###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 감독: 이희범(전임자: 오우현)

용현 와드 감독: 도용환(전임자: 김용구)

만수 와드 감독: 황인석(전임자: 이상열)

연수 지부 지부장: 박인수(전임자: 정웅섭)

### 대구 스테이크

상주 지부 지부장: 주광영(전임자: 박봉구)

구미 지부 지부장: 최기수(전임자: 정동욱)

김천 지부 지부장: 박희숙(전임자: 이태건)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49기 5명/해외 1명



배상운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서울 선교부



손진경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부산 선교부



이선리

서울 서 스테이크  
동작 와드  
부산 선교부



최보경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하희선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대전 선교부



구혜경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유타 주  
템플 스퀘어 선교부